

5/18(월) 소설 '동백꽃'의 서술자를 소설 속 카메라맨으로 바꾼다면? (작가 관찰자 시점)

▼ 주의: 소설 '동백꽃'의 두 주인공은 여러분보다 더 큰 열일곱 살입니다. 우리 함께 열일곱 살 두 남녀의 연애 이야기를 감상해 봅시다.

* 필수항목

서술자를 파악하며 소설 감상하기 단원

관련 교과서 단원: 1. 문학의 눈 (2) 이야기 속 시선 (교과서 26쪽 ~ 45쪽)

1. 학번, 이름 *

예) 20115 홍길동

<핵심 이론 정리>

- 소설 속의 '서술자': 소설 속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야기(서술)해주는 사람.
- 시점: 서술자의 위치
- 원래의 소설인 '동백꽃'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 <작가 관찰자 시점>(카메라맨 시점)
소설 속의 작가가 이야기를 서술함. (실제 작가 아님. 소설 속의 작가임.)
'작가 관찰자'는 '전지적 작가'와는 많이 다른 서술자임.
소설 속의 작가가 관찰한 내용만을 독자들에게 이야기(서술)해 줌.
소설 속 작가가 카메라를 들고 등장인물들을 촬영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쉬움.
서술자는 등장인물들을 관찰하는 작가(관찰자)이므로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처럼 서술함.
어떠한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속마음 등도 서술할 수 없음.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카메라맨의 시점)을 구분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쓴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표현한 부분만 지우면 '작가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 된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등장 인물의 생각과 속마음이 서술되어 있음.)

점순이는 요즘 들어 덕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작년까지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올해는 겨울 동안 빌려다 읽은 연애 소설 때문인지 아랫집에 사는 열일곱 살 동갑내기 덕수가 연애 상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점순이는 덕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다. 점순이는 덕수를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 어떻게 친해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울타리를 고치는 덕수를 보며 엄마 몰래 감자를 굽기 시작했다. '감자야 맛있게 구워져라. 우리 덕수 배고플 텐데 얼른 구워져라.' 점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작가 관찰자 시점> (등장인물의 생각과 속마음이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음. 카메라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촬영해서 보여줄 뿐임.)

며칠 전부터 점순이는 자기네 집 울타리에서 아랫집을 쳐다 보는 일이 많아졌다. 점순이의 엄마가 밭에 일을 하러 나가고 점순이는 방문을 꼭 잠그고 나서 장롱 뒤에 숨겨 놓았던 감자 세 개를 꺼내어 들고 부엌에 들어갔다. 점순이가 감자를 굽기 시작했다. (혼잣말로) "덕수 배고플 텐데." 감자를 구우며 웃는 점순이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작가 관찰자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작가 관찰자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래의 학생 글 예시는 어제 수업에서 2학년 학생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다고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하지만 처음 쓴 글은 여러분도 보드시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서술되므로, 상상하는 즐거움이라는 작가 관찰자 시점의 매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특히 소설 속의 작가가 등장인물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서술하지 않도록 글을 써보고, 지난 시간에 배운 전지적 작가 시점과는 다른 작가 관찰자 시점의 매력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생이 처음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쓴 글>

덕수의 닭이 거의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눈 하나 깜짝 없이 호드기만 부는 모습에 덕수는 ~~화가 나~~ 점순네 집 닭을 단매로 때려 죽여 버렸다.

그러자 점순이가 말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러자 덕수도 ~~화를 아가자 못하고~~ 말했다. "그럼 어때?"

점순이가 말했다. "뭐 이자식아? 누 집 닭인데?"

그러자 덕수는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짐도 내쫓기고 해야 달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정한 글>

덕수의 닭이 거의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점순이는 눈 하나 깜짝 없이 호드기만 불었다. 덕수는 갑자기 달려들어 점순네 집 닭을 단매로 때려 죽여 버렸다.

그러자 점순이가 말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러자 덕수가 화가 잔뜩 난 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어때?"

점순이가 말했다. "뭐 이자식아? 누 집 닭인데?"

그러자 덕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빛이 흔들리다가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2. 질문1. (카메라맨이 되어서 등장인물들의 연기를 촬영한다고 생각하며) 서술자를 소설 속의 '작가 관찰자'로 바꿔서 소설을 써봅시다. (열 줄 이상 적어보세요.) *

(전체 줄거리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쓰고 싶은 부분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작가 관찰자 시점) (예시) 아랫집 덕수가 울타리를 고치고 있는데 점순이가 발소리도 없이 덕수의 등 뒤에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얘! 너 혼자만 일하니?" 그런데 덕수는 점순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혼자 일하지 떼거지로 하나?" 라고 대답했다. 점순이는 "너 일하기 좋니?"라고 다시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3. 질문2. 서술자가 카메라맨처럼 남녀 주인공들의 말과 행동만을 관찰해서 들려주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

작가 관찰자 시점의 매력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4. <오늘 수업을 마치며> “오늘 수업에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나요?)

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Google 설문지